



일상생활 나고 드는 곳은 한자리 뿐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더군다나 부처님의 출가일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로 태어나서 죽고 사는 것을 모르시다 죽는 것도 아시고, 병드는 것도 아시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고행을 하고 사는 지도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한철 사는 것이 너무나 허망해서 출가를 하신 것이죠. 그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만이 정말이지 부처님을 존경하고 받들어 모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부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꼼꼼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불교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겁니다. 불이라는 건 일체 만물 만생의 근본 생명이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누가 해라 안해라 하기 이전에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끝없이 흘러가듯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요새 한창 기독교에 눌려서 불교를 믿는다는 말을 뽕뽕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허허... 정말 그러십니까?

만물의 근본생명이 佛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육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세계 공기주머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시고 아셔야 합니다. 쿨 속에서 사는 고기들이 물 바깥에 나오면 못 산다는 거 아시죠? 그와 같이 인간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통 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만이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당시에 가르치신 그 뜻, 그것을 현재 용어로 알아듣기 쉽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 안에 잔뜩 들어있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을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비유를 했고, 몸은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배를 띄워 놓은 거 같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망망대해에 배 띄워서 건너가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사공 선장한테다가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야지 아무 지장 없이 건너갈 수 있지 제가 몸 배속에서 파도친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바깥으로 아무리 관세음 보살, 주해신, 주산신, 부처님을 불러 봤자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배가 뒤집히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미거한 자들이!년부터 먼저 알라.' 했습니다.년부터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법공양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를 알고,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공해서 고정됨이 없이 초월해서 끝없이 돌아가는 여려한 생활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다니며 봐도 또는 우리 불교를 봐도 그렇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아니, 일거수 일투족 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용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록으로 꼬달립니다. 만날 기도를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해도 상대방에게 기도를 하니 나와 부처님과 항상 둘이 되죠. 어떻게 하나로, 한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언제나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뚝 솟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라 일체 만물 만생이 아니 되는 것이 없고, 내 자리 아니 되는 것이 없고, 내 몸 아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방편으로 이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덕이 될 수도 없는 행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도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일배를 한다 하더라도 한마음이 돼서 하면은 공덕이 되지만, 한마음이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내가 있어 가지고 부처님 따로 놓고 일배, 삼배, 아니 삼천 배를 한들 공덕이 될까? 이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좀더 알아야 하며, 나는 무슨 팔자가 이런가, 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인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떠한 것을 볼 때에 고정되게 보는 거 있습니까? 보면 다른 거 봐야하고, 들었으면 다른 거 들어야 하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야하고,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애, 아무개야' 하면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찰나찰나 바꾸는 사이 없이 바뀌가면서 돌아가는 이런 이치에서 볼 때에, 우리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만남도 일거수 일투족이 다 공해서 찰나찰나 나뉘면서 회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여려한 것을 가지고 온통 마음으로 승인이 불들리고, 관승에 불들리고, 집착에 불들리고, 욕심에 불들리고, 애정에 불들리고 온통 불들려 가지고는 돌아가는 게 낫겠는데도 그냥 불들고 늘어져서 온통 사단이 생기고,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묘하고 광대한 무변한 건지 여러분은 그걸 체득하셔야 됩니다. 마음 한 번 잘 쓰면은 구멍이어서 나올 수도 있고 마음 한 번 잘못 써서 구멍이 들어가는 수도 많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신통이라는 말이 있죠. 천이통?천안통?타심통?진족통?숙명통 이 다섯 가지를 현대 말로 비유하면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고, 입력이 돼서 현실에 차례 차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나오는 대로 다시 놓아서 입력이 되면은 앞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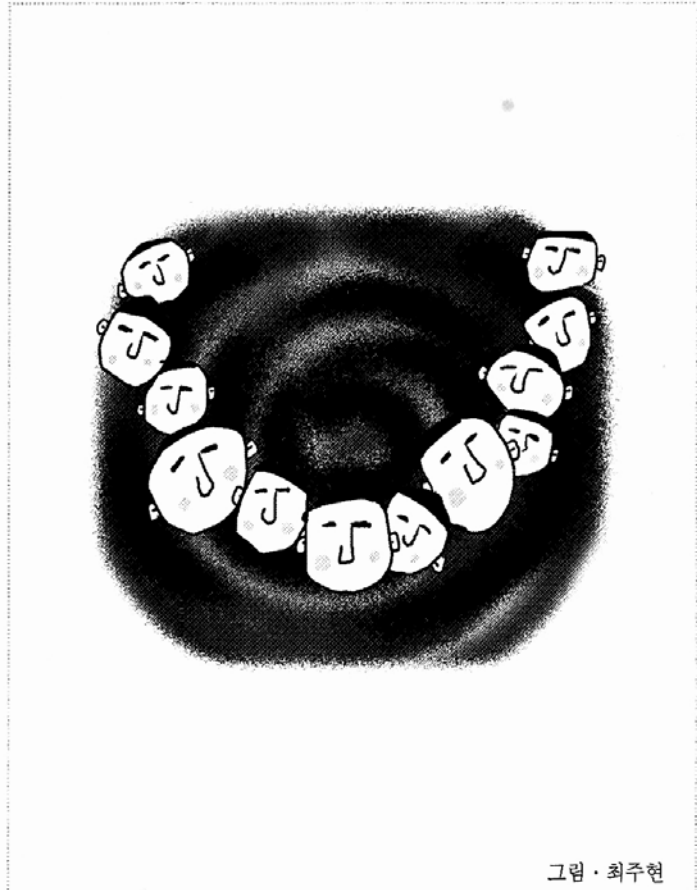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잘 나왔으면 감사하게 놓고 잘못 나오는 건 돌려놓아야 돌아나게 행할 수 있어요

은 없애지는 거죠? 그러나 팔자 운명도 없고, 잘된다 잘못된다 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좋글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없어질 수가 있는 거지 딴 데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고 드는 자리가 한 구멍이지 두 구멍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느끼며 사는게 教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항상 보고 들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보고 듣고 내 즐 때에 그 자리입니다. 일상생활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 자리에서 나오는 거 내 자리에다 놓고, 잘못 나오는 거는 돌려놓을 수 있고, 구정물을 맑은 물로 대체할 수가 있고, 또 잘 나왔으면 감사하게 놓으면서 양면을 다 한자리에 다 놓아야 만이 자연적으로 과거에 살던 '부'와 현재에 사는 '자'가 둘 아니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 스님이 항상 설법을 해주시니 그런 뜻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양무제가 많은 시주를 하고, 스님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불사를 했는데 달마대사께서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 몸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요, 바깥을 봐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전부 하나로 돌아가면서 하나로 돌아가는 그 도리를 안다면 만 사람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일불 일 것

이고, 또는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마저도 공해서 없이 여려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두가 한군데다가 입력을 해야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 공부하는 분들은 팔자 운명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띠를 가지고, 가난함을 가지고 팔자운명이라고 한다면 그 팔자운명은 몽땅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걸어들어오실 적에 발 자체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한군데만 보고 있다면 승장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한군데 보는 점도 없고, 한군데 가는 점도 없고, 한군데서 듣는 점도 없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면서 여려하게 돌아가는데 뭘 거기서 불들고 자시고 애를 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안으로 모든 것을 맡겨서 바깥에서 딱치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거기 놓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신다면 모두가 유유하고 여려하게 부처님의 뜻을 받을 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죽고 또 죽어도 어떻게 그 감사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허탈히 살다보면 이 다음 생에 나올 때에, 몸 속에도 다섯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업보성 세균성 유전성 인과성 영계성 말입니다. 많고 적고 썩이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공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온 것도 없고, 어떻게 살 것도 없고,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도 없습니다. 그대로니까, 그러니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차례로 나와서 속을 썩이거든요. 그 의식들이, 잘못된 것이 과거로 돌아가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는 없고 현실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는 돌아갔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공했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역력히 아셔야 됩니다.

묘하고 광대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공양 한 그릇을 놓더라도, 공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꽃을 하나 갖다 놓더라도 공심으로서 공양을 해야지요. 부처님 앞에 오면은 부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의 법이 내 법이니 둘 아니게 부처님한테다 몽땅 놓고 짚을 하세요. 그리고 가실 때는 몽땅 내가 안고 가세요. 부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미래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는 돌아갔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공했기 때문에 없어요

가든 저기,가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질서 없이 말을 하지만 질서 있게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철 사는데 한철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지만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한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눈이 뜨질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해서 아무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의 습관이 생겨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으로 사는 세계의 맛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모두를 벗어나서 마음으로 사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인도를 하였고, 그러니 한 생을 그냥 잘 먹고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절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신다면 조상은 물러가거나 자기가 뿌려놓은 자녀들도 다 견져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견져진다는 거죠. 염주 얹은 췌면 염주요 췌질 얹으면 염주가 아닙니다. 췌어져 있기 때문에 염주죠. 그렇듯이 한 식구라 할지라도 췌어지지 않았으니 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평상시에 자손들이 나가서 자고 안 들어오고, 공부 안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또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과거로부터 영계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급격히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거는 뭘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마음에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지 말로 욕을 하고 아무리 때리고 해도 그거는 안 고쳐집니다. 점점 더하면 더했지, 여러 분한테 해당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기간에도 싸우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세

상에 나지 않았으면 나쁘고 좋은 게 내 앞에 닥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탓이죠.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끼리끼리 만난 것이 지금 낱마 전에 가 있습니까? 낱마가 금방에 가 있습니까? 사과가 배하고 섞여 있습니까? 배가 사과하고 섞여 있습니까? 수없는 물건이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사람도 끼리끼리, 물건도 끼리끼리, 금도 금방에나 있지 낱마 전에 있지 않아요. 무쇠도 무쇠 전에 있지 금방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한 가정이 살아간다는 데도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금이면 금끼리 모여 있어요. 내가 무쇠이기 때문에 무쇠끼리 같이 만나는 거구요.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도 만난 인연들이 같은 인연들이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같은 인연이기 때문에 만났으니 너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난 망했다, 너 때문에 안돼 이렇게 말 할 아무 것이 없어요. 당하는 놈도 하는 놈도 모두가 똑같은 인연들이니까요. 그러니 누구 탓을 합니까. 탓을 해봤자요. 그렇게 탓을 하고 싸우게 되면은, 돈이 저기서 왔다가도 아이고, 저 집에 들어가면 고통스럽겠다 이라고 그냥 달아나가요. 생명 없는 것이 어디 있으며 마음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체 만물 만생이 다 마음 있고 생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그렇게 내 탓으로 돌리고 부부기간에도 잘못됐으면 서로 간에 '야, 모두가 내 탓이지. 주인공! 뿌리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밝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너 뿐이야 할 때 전구가 몇몇이 있어도 스위치 한 번 누르면 다 밝게 살 수 있도록 돼 있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기를 때도, 자손들이 아니라 즉 자기인데 자기는 현실의 곁테가 되고 미래의 자기인데 자기를 소홀히 생각하고, 너 배울 때 배워가지 강등을 차려고 고르느냐 마느냐 하구 온통 욕을 해대고, 그렇게 욕할 땐 화가 나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재가 일일이 돼서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 그 길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자손한테도 그렇고 어린애한테 못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애를 보는데 부부가 서로 위하고 화목하고, 내 탓 내 탓 따지지 마시고,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안과 겉이 다 화목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게 부처님 뜻을 따르는 법이요, 또는 내 법을 그대로 응용하는 법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이 그대로 여려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까.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 3년을 두고 내 내 집안에서는 얼마 소리로 제대로 안하고 들들러고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아버지고 어머니고 없고 나가면 일주일도 가요. 학교는 어찌다가 가고 만날 어머니 불려내고 사교나 왔다고 하면서 울며불며 그러길래 이 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면 겨울에는 '춥지 않았나?' 여름에는 '덥지 않았나?' 뭘 먹거나 했나?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고 부드러운 행동으로 안애다가 모든 것을 입입했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가 떠납니다. 그리고는 겨울에 먹은 김치 독을 뒤으려고 하니까 문을 푼 열고 나와서 '어머니! 내가 이일까지 속 썩인 거 어떻게 깊어야 다 깊은 런지 모르겠습니까?' 하면

24면으로 계속

가짜 큰 인덕을 보듯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5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